

#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Self-Leadership Program on Career Awareness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on Probation

허정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ong-Cheol Heo(jcheo@kw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인식 하위 영역 가운데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목표 설정과 전략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하위 영역 가운데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제난이도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더욱더 활발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 진로인식 | 자기효능감 |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 self-leadership program on career recognition and self-efficacy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 self-leadership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understanding, the understanding of work and the job world, setting a career goal and strategies in the sub-area of career recognition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rea of attitudes and values of work. The self-leadership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fidence, self-regulated efficacy among the sub-area of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ifficulty of the challen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lf-leadership program had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recognition and self-efficacy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recognition and self-efficacy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further studies on the self-leadership program are needed and care should be paid to its usability.

■ keyword : | Self-leadership Program | Career Recognition | Self-efficacy |

\* 본 연구 결과는 2017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07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8월 28일

수정일자 : 2017년 08월 28일

교신저자 : 허정철, e-mail : jcheo@kwu.ac.kr

## 1. 서론

최근 셀프리더십이 청소년 시기의 목표설정 행위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리더십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1].

셀프리더십은 지시, 명령, 통제, 보상, 처벌 등에 의한 전통적인 리더십보다는 스스로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능력으로 생활전반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2]. 지금의 현대사회는 개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스스로를 조절하고, 리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전략 중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3]. 발달심리학의 측면에서 청소년 시기는 리더십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이며[2], 이는 청소년 시기에 셀프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 인생전반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4].

청소년 시기는 일과 직업의 세계를 탐색함과 동시에 자아 특성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써 자기 특성에 맞는 직업과 관련지어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일의 세계에 대한 관심, 장래 진로에 대한 관심, 일과 진로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인식하는 중요한 인간발달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필요로 청소년기의 진로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진로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5]. 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진로인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6].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진로인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진로인식에 대한 연구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다[7-14]. 즉, 진로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연구들도 진로체험활동이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진로인식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이었다[5][6]. 청소년기는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시기이다. 즉, 셀프리더십이 청소년의 생활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의 진로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이 청소년의 진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생전반의 발달단계 중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청소년에게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로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일반청소년이 아닌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셀프리더십이 진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자본 찾기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태도 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있었지만[15][16],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인생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의 효능감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제시되었으며[17][18],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셀프리더십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였던 연구들은 몇 개가 있는데, 모두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었다[19][20]. 특히,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행동 특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냈다[21-23].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인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둘째,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의 창시자인 Manz[24]는 그의 저서 「The Art of Self-Leadership」에서 기존의 이론을 확장하여 셀프리더십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셀프리더십을 하급자들에게 자기통제와 같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하게 함으로써 일의 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효과적인 내적 리더십이라고 하였다. Manz[25]는 셀프리더십을 자아발견과 자기만족을 향한 여행이라고 하였으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며, 자기효능감을 위한 기술이고, 행동통제의 기초이자 자아완성의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Manz와 Sims[26]는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한 내적 탐구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Neck, Stewart와 Manz[27]는 작업 수행을 위한 자기방향 설정과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 전략을 셀프리더십으로 보았다. 송영수[28]는 셀프리더십을 각 구성원 개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행위적·인지

적 전략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이라고 하였다. 송한나[29]는 셀프리더십이란 개인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이며, 행동적이고 인지적인 전략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삶에 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남해경[30]은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일반적인 리더십이 지닌 외부적 리더십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내부적인 리더십을 의미하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하였다. 이수정[31]은 셀프리더십이란 한 사람의 리더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리더십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인지적·행동적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리더십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셀프리더십이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의 성과를 증대시키며 스스로 자신의 삶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2. 진로인식

진로인식이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가치와 진로선택의 근거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 특기에 대한 이해, 직업과 일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등 앞으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을 포함하는 가치의 총체를 말한다[32]. 진로인식은 개인의 생애 직업 발달과 그 과정에 대해 지각, 기억, 내성에 의한 깨달음, 의욕을 갖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 인식, 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등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체계를 의미한다[33]. 윤연진[34]은 진로인식을 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일과 직업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의식체계로 앞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할 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심보영, 이철현[35]은 진로인식이란 자신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하고 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정의하였다. 박현진, 백성혜[36]는 진로인식을 자아발견, 일의 세계에 대한 관심, 장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 교육적 측면의 이해,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일과 진로의 경제적 면에 대한 인식으로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인식이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성격 및 잠재적 능력을 이해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형성 등 직업인으로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의식체계라고 정의하였으며, 진로인식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진로 목표 설정과 전략 등이 있다.

###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37]. 또한 Wood & Locke[38]는 자기효능감을 과제 상황과 관련지어 요구되는 일련의 구체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적 추정이며,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기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는 데는 격려, 칭찬, 긍정적 피드백 같은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39]. Bandura[40]는 자기효능감은 향상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직접적인 성취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어떠한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를 하며,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등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었다.

### 4. 셀프리더십과 진로인식

청소년의 진로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청소년 자신이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신이 가장 행복

해 하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본인에게 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진로목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행동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셀프리더십이란 정신적 전략, 인지적 전략, 행동적 전략들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전문적인 효과성 개발을 목표로 하는 개인의 향상을 위한 과정[26]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 방향과 자기 동기를 이루어가는 자기 영향의 과정이기 때문이다[41].

이것은 청소년의 진로인식 과정 속에 셀프리더십이 작용하여 개인에게 영향력을 주고, 개인의 효과성 개발에 도움을 주어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셀프리더십은 청소년의 진로와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진로인식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수정[32]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의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의 진로를 주변의 시선에 의존하여 결정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진로동기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42][43].

### 5.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김소령[4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예종[20]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을

측정한 결과 사전검사점수와 사후검사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성 검증결과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일반적효능감과 사회적효능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성문, 김미옥[19]은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자신을 탐색하고 성찰하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리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준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므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표현, 자기주장을 바탕으로 긍정적 자기인식과 자기결정을 통해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셀프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셀프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인식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셀프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 2.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Locke & Latham[45]의 목표설정이론을 바탕으로, Covey[46]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박명숙[47]의 중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토대로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표 1]과 같이 멘토링 활동으로 15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한 회기당 120분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

는 어떻게 살 것인가?' 크게 3단계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깨우쳐 줌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표 1. 셀프리더십프로그램

영역	회기	프로그램	활동내용, 기대효과
초기	1	멘토-멘티 결연식	프로그램 목적 및 진행과정 소개 라포형성(자기소개) 사전검사 실시, 신뢰감 형성
	2	나를 찾아서	나의 행복지수를 알아본다. 나의 습관을 확인하고 바른 습관형성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성격의 강점을 안다.
	3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자신과 타인을 보는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꾼다. 패러다임의 전환(긍정적 사고), 이재서교수 이야기(내 안에 있는 1%의 가치)
중기	4	셀프리더십 소개	셀프리더십을 이해하고 탐색한다.
	5	좋은 발에 뿌려진 씨앗	올바른 가치관 세우기. 자신의 장점(재능, 소질, 특기)을 확인(10가지 작성)하고, 자신에게 칭찬해 주기
	6	삶의 주인은 나(I)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인식한다. 심리적 체험, 느낌 나누기
	7	삶의 주인은 나(II)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더 큰 개인적 자유와 영향력을 가진다. 레나 마리아 동영상 감상, 느낌나누기
	8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욕구 알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9	내 꿈을 찾아서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는다. 꿈의 목록 작성하기.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재과 빵 만들기)
	10	사례회의	슈퍼비전, 사례지도
	11	항해를 위한 준비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바리스타체험)
	12	나는 유능한 선장	실제적인 학습목표와 행동전략을 수립. 진로준비행동 전략수립
	종결	13	두 손의 의미
14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인가를 인식함.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실천할 것을 다짐. 소감문나누기
15		종결·평가	프로그램 종결식. 사후검사(효과성 평가). 종결감정나누기. 성취하고 변화된 점 칭찬, 해산식

### 3. 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로써 독립변인은 실험집단에게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것이고, 그에 따른 종속변인은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에서 점수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사전-사후검사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프로그램진행	사후검사
실험집단	O <sub>1</sub>	셀프리더십프로그램(x)	O <sub>2</sub>
통제집단	O <sub>3</sub>		O <sub>4</sub>

실험집단: 프로그램실시, 통제집단: 프로그램실시하지 않음

### 4.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2016년 4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5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보호관찰소 여자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집단은 참여를 원하는 보호관찰소 여자청소년 중 15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으로, 통제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관찰소 여자청소년 중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15명을 선정할 후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 5. 연구도구

#### 1.1 진로인식 측정도구

청소년의 진로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혜영[48]이 개발한 진로인식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자기이해(10문항),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10문항),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7문항), 진로 목표 설정과 전략(9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  $\alpha$ )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진로인식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하위영역	내 용	해당문항번호	사전 (a)	사후 (a)
자기이해	나의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1,2,3,4,5,19,20,21,22,23	.82	.78
일과직업 세계의이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의 좋은 점을 알고 있다.	6,7,8,9,12,24,25,26,27,28	.80	.75
일에 대한 긍정적인태도 및 가치관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10,11,13,29,30,31,32	.84	.81
진로목표 설정과 전략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4,15,16,17,18,33,34,35,36	.77	.83
합계		총 36문항		

#### 1.2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 차은정[49]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5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 : 역문항)

하위영역	내 용	해당문항번호	사전 (a)	사후 (a)
자신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 할 수 있다.	1*,3*,5*,10*,11*,13*,16*	.92	.93
자기조절 효능감	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2,4,7,8,12,14,17,19,20,21,23,24	.81	.92
과제 난이도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6*, 9*, 15, 18, 22	.85	.86
합계		총 24문항		

### 6. 자료분석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얼마만큼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1) 셸프리더십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진로인식 및 자기효능감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인식 및 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전결과를 독립표본 t 검증하였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인식 및 자기효능감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 가. 진로인식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인식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인식 사전검사 비교

진로 인식	집단 (N=12)	M	SD	t	p
자기이해	실험집단 통제집단	3,5667 3,3742	.5634 .6103	.583	.524
일과직업 세계이해	실험집단 통제집단	3,4556 3,5012	.4447 .4702	-.232	.816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실험집단 통제집단	3,5873 3,4516	.2195 .3215	.365	.617
진로목표 설정과 전략	실험집단 통제집단	3,6049 3,6514	.4271 .4752	-.216	.925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인식 전 하위영역에 걸쳐  $p > .0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진로인식에서 동질집단으로 판단되었다.

###### 나. 자기효능감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사전검사 비교

자기효능감	집단 (N=12)	M	SD	t	p
자신감	실험집단 통제집단	3,2222 3,1517	.9206 .5816	.326	.614
자기조절 효능감	실험집단 통제집단	3,1759 3,2574	.4217 .6137	-.769	.214
과제난이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2,4444 2,5178	.9098 .7165	-.697	.237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자기효능감에서  $p > .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 가. 진로인식 사전·사후검사 비교

셸프리더십프로그램이 진로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인식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인식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 인식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자기이해	실험 통제	3,5667 3,3742	.5634 .6103	4,4556 3,2998	.2697 .7832	-4,197 .597	.003 .517
일과직업 세계이해	실험 통제	3,4556 3,5012	.4472 .4702	4,2444 3,4873	.4850 .5693	-3,377 .396	.010 .866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실험 통제	3,5873 3,4516	.2195 .3215	3,7143 3,5089	.3977 .6341	-1,057 -.426	.321 .815
진로목표 설정과 전략	실험 통제	3,6049 3,6514	.4271 .4752	4,0617 3,5983	.5446 .6105	-3,313 .402	.011 .846

위 [표 7]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인식 하위 영역 가운데 자기이해,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목표 설정과 전략 영역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셸프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 보았으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다. 그리고 미

래이력서를 작성해 보았고,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 보았다. 진로체험으로 제과빵 만들기, 바리스타스쿨에서 커피 제조하는 것을 해 보았다. 그리고 심리역할극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미래이력서 작성, 제과빵만들기, 바리스타체험 등 진로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로인식 영역 가운데 일에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기간의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나. 자기효능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셀프리더십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임파워먼트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자기 효능감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자신감	실험	3.2222	.9206	4.2698	.9434	-3.307	.011
	통제	3.1517	.5816	3.1985	.4935		
자기조절 효능감	실험	3.1759	.4217	3.9815	.7380	-3.550	.008
	통제	3.2574	.6137	3.1368	.4982		
과제 난이도 선호	실험	2.4444	.9098	2.6222	.8743	-.819	.437
	통제	2.5178	.7165	2.5049	.7108		

위 [표 8]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하위영역 가운데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제난이도 선호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가운데 ‘심리역할극’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역할극을 통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되어 자신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단체 활동 중에

제과빵만들기, 바리스타체험 등을 하면서 대학생멘토들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잘한다, 잘했어’라는 말로 자주 응원해 준 것이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은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용기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고, 이 세상에 실패라는 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조절효능감이 향상되어, 보호관찰소 청소년 중에 몇명은 대학진학에 도전해서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하였다. 하지만, 자기효능감 하위영역 가운데 과제난이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동안 청소년들이 힘든 과제를 도전할 기회가 없었고, 또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회피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패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V. 논의 및 결론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인식 하위 영역가운데 자기이해,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목표설정과 전략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가운데 직접 바리스타학원이나 제과빵 직업 학교에서 체험을 하고, 자신의 미래이력서를 작성해 보기, 멘토와의 개인면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청소년은 ‘미래이력서’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앞으로 자신이 취득해야할 자격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알았고, 자격증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어떤 청소년은 검정고시에 합격을 한 다음,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서 간호조무사로 취직을 하고자 목표를 세워 준비하고 있다. 또 어떤 청소년은 미용분야로 직업훈련을 받고, 그 후에 미용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꿈을 갖게 되었다. 어떤 청소년



년은 대학생멘토들을 통해서 대학진학에 필요성을 깨닫고, 멘토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2017년 수시에 합격을 해서 대학에 입학하였다. 어떤 청소년은 자신이 바리스타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실기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대부분이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멘토들의 도움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처럼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진로인식의 자기이해, 일과 직업의 이해, 진로목표설정과 전략 영역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수정[31]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셀프리더십이 진로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던 이민섭 외[42]의 연구와도 유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진로인식 하위영역 가운데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6개월간의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까지 변화시키는 데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하위 영역가운데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가운데 ‘심리역할극’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떤 청소년은 심리역할극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면서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단체활동을 통해서 제과빵 만들기, 바리스타 체험 등을 통해서 자신이 뭐든지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단체 활동이나 개인면담을 통해서 대학생멘토들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격려, 칭찬, 진심어린 관심을 보일 때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청소년은 스스로 진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검정고시학원에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거나, 어떤 청소년은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어떤 청소년은 대학생멘토들의 영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자기조절효능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1:1로 청소년 멘티와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칭찬으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아주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도움을 주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김소령[4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을 탐색하고 성찰하게 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표현, 자기주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천성문·김미옥[19]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감 영역가운데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평소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나 과거 실패에 대한 경험 등으로 인해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기 싫은 과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했던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따뜻한 관심과 격려와 칭찬 등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였고,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자신은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결핍된 상태였으며, 성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이 멘토가되어 그들의 강점을 찾아주며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낼 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찾아가고 준비하면서 자기효능감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과빵 만들기, 바리스타 체험 등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자신들도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심리역할극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은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자신들도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진로를 준비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지지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상자의 수와 선정에서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참 고 문 헌**

[1] 박용석,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호, pp.1-24, 2013.

[2] 박명숙, *중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김보경,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 남기연,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5] 박현진, 백성혜,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진로체험 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제21권, 제1호, pp.11-31, 2015.

[6] 박경분,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7] 이현림, 최남옥, 류진영, “활동중심 진로인식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pp.45-54, 2007.

[8] 정상영, 이현림, “REBT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제17권, 제3호, pp.217-229, 2008.

[9] 문성환, 이현주, “교과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22권, 제3호, pp.55-72, 2011.

[10] 원진, 문성환, 함승연, “체험중심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기술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56-176, 2013.

[11] 이지연, 문성환, “교과연계 스토리텔링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25권, 제4호, pp.231-252, 2014.

[12] 심보영, 이철현,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7권, 제4호, pp.187-205, 2014.

[13] 배서윤,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고학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4] 배서윤, 김현진,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 pp.59-85, 2016.

[15] 허정철,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pp.157-166, 2015.

[16] 허정철,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pp.154-164, 2015.
- [17] 송영선, *상황대응 리더십 II와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8] 최창욱, *중학생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19] 천성문, 김미옥, “셀프리더십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 *인문학논총*, 제39집, pp.453-477, 2015.
- [20] 김예중, *셀프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1] 김시연,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1호, pp.99-115, 2002.
- [22] 송지영, *현실상담을 적용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력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23]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2권, 제2호, pp.45-76, 2006.
- [24] 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A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 [25] C. C. Manz,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제11권, 제3호, pp.585-600, 1986.
- [26] C. C. Manz and H. P. Jr. Sims, *Super leadership: learning other to themselv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9.
- [27] C. P. Neck, G. Stewart, and C. C. Manz, “Through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제31권, 제3호, pp.278-302, 1995.
- [28] 송영수, “기업내 셀프리더십 필요역량 탐색,” *한국HRD연구*, 제13권, 제3호, pp.51-74, 2011.
- [29] 송한나,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0] 남혜경, *청소년기 장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교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1] 이수정, *셀프리더십향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2] 지용근, 김옥희, 양종국, *진로상담의 이해*, 서울: 동문사, 2005.
- [3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2011.
- [34] 윤연진,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대한 학생 자아 개념의 영향과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5] 심보영, 이철현,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7권, 제4호, pp.187-205, 2014.
- [36] 박현진, 백성혜,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진로체험 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제21권, 제1호, pp.11-31, 2015.
- [37] A. Bandur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제84권, 제2호, pp.191-215, 1977.
- [38] R. E. Wood, A. J. Mento, and E. A. Locke, “Task complexity as a moderator of goal effects :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87.
- [39] 권혁호,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적 지원, 대처 양식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 2003.

- [40]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6.
- [41] C. P. Neck and J. D. Houghton,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제21권, 제4호, pp.270-295, 2006.
- [42] 이민섭, 이용건, 정태겸,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자아존중감, 전공만족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6권, 제2호, pp.131-145, 2017.
- [43] 김보경, 정철영,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개인이 인식한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4권, 제2호, pp.49-71, 2012.
- [44] 김소령,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5] E. A. Locke and G. P. Latham, "Building a practically useful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motivation : A 35-year odyssey," *American Psychologist*, Vol.57, pp.705-717, 2002.
- [46] S. R. Covey,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김경섭, 유경태 역, 서울: 김영사, 2004.
- [47] 박명숙, *중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8] 진혜영, *진로인식 향상을 위한 초등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9] 김아영, 차정은,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51-64, 1996.

저 자 소 개

허 정 철(Jeong-Cheol Heo)

종신회원



- 1994년 2월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분야